공해없는 자동차 우리에게 맡겨라!

수원캠퍼스-경희 자동차연구회 KHARS

▲자신들이 만든 경희2호기에 오른 KHARS 회원들

대학최초 무공해 자동차 만들어
18일 도서관 개관때 시운전 예정

폐차장에나 있을법한 엔진이나 타이어가 없는 고물차, 그리고 그 주위에는 목장갑을 낀 사내들이 그 고물차를 가지고 무엇인가 열심히 조작하고 있다.

대학에서 최초로 무공해 자동차를 만들었고 국내 자동차동아리로선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이 경희자동차연구회(KHARS)는 현재까지 4기의 차량을 만들어 냈다. 이들이 만든 자동차를 보고 있노라면 과연 이것이 학생들이 만든 자동차인가 하는 의아심까지 느끼게 된다.

92년부터 본격적인 자동차를 만들어온 KHARS는 경희1호기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Hybrid(복합연료)방식의 2호기와 초경량자동차(50cc 엔진)인 경희 3호기, 그리고 제1회 전국 대학생 자작 자동차 경주대회 출전을 목표로 경희 4호기를 만들고 있다. 이 중 관심을 끄는 차량은 Hybrid방식을 택하고 있는 경희 2호기이다.

Hybrid방식이란 복합연료를 사용하는 장치로서 전기, 가솔린, 수소 등의 연료중에 두가지 연료를 택하고 있는 방식인데 현재 2호기는 가솔린과 전기를 연료로 삼는 병렬 Hybrid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병렬방식은 전륜 또는 후륜방식에 비해 무게의 중심을 후면으로 자리잡아 안전성을 높인것이 장점이다. 125cc의 엔진에 총중량은 3백㎏이며 저속(40㎞이하)에서는 모터로 운전을 하게 되고 고속에서는 엔진으로 구동하여 최고시속 80㎞를 낼 수 있다. 한편 최고시속의 문제는 80㎞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용되는 엔진의 가격에 따라 최고속도를 좌우한다.

이 방식은 연료 및 공해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 모터의 가격만 3~4백만원이 넘어 국가의 정책이 없는 한 실용화되기는 힘겨운 실정이다.

비포장도로용인 경희 4호기는 튼튼한 차로 만들어지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이 차량은 오는 11월 영남대에서 열리는 제1회 전국 대학생 자작 자동차 경주대회에도 출전할 예정이다.

한편 KHARS는 현재 2호기를 자체정비하여 오는 18일 도서관 개관식에 맞춰 시운전을 할 계획이다.

또한 KHARS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한국대학생 자동차연구회(회장 김정호 : 기계91)가 지난 8일 우리학교에서 창립되었다. "이 단체를 통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연구하던 성과물들이 같은 주제하에 연구를 하게 되어서 기쁘다."라고 신임회장 김정호군은 말한다.

이런 성공적인 흐름속에서 KHARS에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재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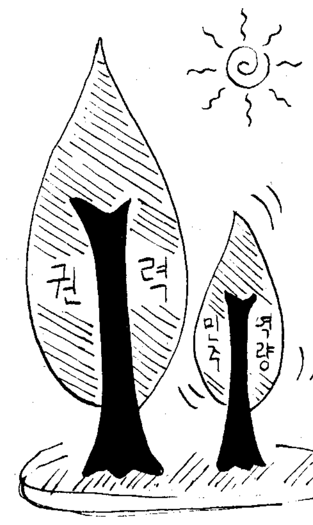
KHARS에 한해 들어오는 돈은 과 지원비와 동문찬조금을 비롯하여 약 3백만원 가량된다. 그러나 이 돈으로는 자동차 1대를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이들은 자체 튜닝작업을 하기때문에 여러 공구들도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 KHARS는 세분화된 자동차연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를 연구하다 보니 세부적인 기술 습득이 어려워 엔진이나 디자인 등에 심혈을 쏟아 디자인공모 등에 출품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모형 레저스포츠자동차도 개발해 다음 대동제때 선보일 예정이라고 KHARS 회장인 서상완(기계·94)군은 앞으로의 계획을 밝힌다. 〈이택근 기자〉

세시봉

구영준 취재부장

국가권력 '과유불급'



헌법 제10조의 인간성 존중이념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인간을 단지 국가권력작용의 단순한 객체로 보지 않는데 있다.

비판범리학에서 통제범죄(Crime of Control)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범죄를 통제하는 기관 즉 경찰, 검찰, 법원, 안기부등이 저지르는 국가권력의 범죄를 말한다. 그것은 우리나라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개발독재와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에 대한 국가권력의 무분별한 탄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오늘날 소위 문민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국가권력 남용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지난 8월 '한총련사태'에서 보듯이 경찰이 시위 진압에 사상 최대의 물량을 동원해 학생들을 건물에 가둬놓고 음식물과 여성용품의 반입까지 금지시켜 '비인간적'이라는 비난이 일었으며 연행한 여학생들을 젖가슴을 만지는 성추행 사실이 폭로가 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0일 길가던 시민을 연행하려다 순순히 따르지 않자 얼굴에 공포탄을 쏜 것이나 경찰청장의 총기사용발언, 해산 위주가 아닌 검거 위주의 공격적 시위진압 방식은 경찰이 과연 국민의 '공복'인가 하는 의심을 일으킨다.

지금 여권 일각에서는 '한총련'이후 보수언론과 기득권 세력이 조성한 공안분위기를 틈타 대표적으로 인권유린과 정치사찰에 악용됐던 안기부의 보안법상 고수찬양죄와 불고지죄의 수산권 부활 논의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의원의 선거비용 누락시설이 폭로 되었을때 검찰이 경찰에 수사를 미루어 놓은 것은 '한총련 사태'에 발빠른 대응을 보인 그동안의 검찰의 행태에 견주어 볼때 쉽게 수긍이 안간다. 여기서 국가권력의 이중성이 드러난다. 현재 야권에서 '검·경의 중립화'를 주장하는 것도 일견 납득이 간다.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남용도 커진다'는 말처럼 현재의 공권력은 바로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국가권력은 권력의 속성상 법적·제도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국가권력 담당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식전환보다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권력과 국민사이의 역학관계에서 국민들이 국가권력의 폭력성과 남용을 감시하는 민주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통일강좌 풍성
경실련-민족화해 아카데미, 흥사단-금요개척자 강좌
통일논의 활성화 하는 계기

분단의 상처로 더욱 뜨거운 여름이었다. 그러나 그 열기가 통일로 가는 밑거름이 될지는 의심스럽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이즈음 우리는 지난 여름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 때마침 우리에게는 분단의 현실과 민족의 아픔을 살필 좋은 기회가 있다.

먼저 흥사단에서는 전통적으로 개최하는 금요개척자강좌의 주제를 이번에 통일로 잡았다. 지난 6일 시작해 오는 11월 22일 까지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매주 금요일 7시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다. 단 분단 사적지 탐방은 신청자에 한해 별도로 탐방비를 내야 한다.(☎ 743-2511)

이에 비해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통일협회에서 주최하는 민족화해 아카데미는 좀더 세부적이고 진지한 문제를 안고 출발했다. 올해초 민족화해와 협력을 통한 주체성을 확립하고 통일기반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강좌는 2기를 맞아 전보다 더 짜임새 있는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 강의내용은 크게 세부분으로 분단현실의 인식, 분단사회의 이해와 남북한 통일 정책 점검, 마지막으로 민족의 화해와 협력등이다. 지난 7일 개강했지만 이번주 까지는 수강접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대학생은 50%할인 가격인 오만원에 수강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실련 통일 협회(☎ 764-1253)로 문의하면 된다. 〈학술부〉

일정(회수)	주 제	강 사
9월 6일(1398호)	통일시대를 향한 민족사의 전개 방향	홍일식 (고려대 총장,국문학)
9월 13일(1399회)	민간통일 운동의 흐름과 과제	박만규 (전남대 교수,국사학)
9월 20일(1400회)	통일지향의 문화정책	김문환 (한국문화정책개발원장, 서울대 교수,미학)
10월 4일(1401회)	남북한 정부 차원의 통일 정책 비교	김학준 (단국대 이사장,국제정치학)
10월 11일(1402회)	통일정책으로서의 남북간 경제협력	장원석 (단국대 교수,농업경제학)
10월 18일(1403회)	남북한 청소년 사회화의 실상과 과제	차경수 (서울대 교수,사회교육학)
10월 25일(1404회)	통일을 대비하는 남북한 동질성 확립 방안	임양택 (한양대 교수,경제학)
11월 1일(1405회)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관계	이호재 (고려대 교수,국제정치학)
11월 9일~10일	분단사적지 탐방(백령도)	
11월 15일(1406회)	북한 사회의 이해 -영화상영-	이윤구 (한국선명회 회장)
11월 22일(1407회)	종합토론 : 통일을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발제 : 구종서 (삼성경제연구소 국제정치담당 전문위원)

▲흥사단 강의계획

날 짜	시 간	내 용	교 수
		Ⅰ. 총론 : 분단의 현실에 대한 인식	
9. 7(토)	15:00~17:00	반세기를 넘어선 분단사회와 민족화해	강만길(고려대 교수)
	17:00~18:00	개강식 및 리셉션	
9. 11(수)	19:00~21:00	민족통일의 세계사적 인식	리영희(한양대 교수)
9. 18(수)	19:00~21:00	내가 관찰한 남북한 사회의 특성	주한외국대사
9. 21(토)	15:00~17:00	민족공동체 형성과 통일문화	고은(시인)
9. 24(화)	19:00~21:00	세계질서재편과 남북관계	
10. 2(수)	19:00~21:00	"분단문화의 재인식"	이장희(한국외대 교수)
		(수강자 2-5명 발표)	이장호(서울대 교수)
		Ⅱ. 분단사회의 이해, 그리고 남북한 통일정책	
10. 9(수)	19:00~20:20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와 권력구조	장명봉(국민대 교수)
	20:30~21:50	북한경제의 실상	이상만(중앙대 교수)
10. 12(토)	15:00~16:20	북한의 여성문제	이영애(단국대 교수)
	16:30~17:50	북한의 교육과 과학	
10. 16(수)	19:00~21:50	북한 영화관람	신영희(전 만수대예술단원)
10.19(토)~20(일)		분단기행 및 슬라이드 상영	이지누(분단사진작가)
10. 23(수)	19:00~20:20	분단국 통일사례의 교훈	유도진(경희대 교수)
	20:30~21:50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임동원(아태재단 사무총장)
10. 30(수)	19:00~21:00	북한사회 이해의 허와 실	이장희(한국외대 교수)
		(수강자 2-5명 발표)	권민웅(북한문제조사연구)
		Ⅲ. 민족의 화해와 협력	
11. 7(목)	19:00~20:20	통일정책 추진의 현실적 좌표	양영식(남북회담사무국 자문위원)
	20:30~21:50	한반도의 군축과 평화체제	지만원(군사평론가)
11. 9(토)		남한이주자 생활현장	극단 '오마니'
11. 13(수)	19:00~20:20	통일의 의미와 바람직한 통일방안	이장희(외국어대 교수)
	20:30~21:50	남북간 경제교류·협력	장원석(단국대 교수)
11. 20(수)	19:00~20:20	민족화해와 언론의 역할,	정일용(연합통신 기자)
	20:30~21:50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사회체제	이근식(서울시립대 교수)
11. 27(수)	19:00~21:00	민족화해를 위해 무엇을?	이근식(서울시립대 교수) 김성훈(중앙대 교수)
12. 4(수)	19:00~20:20	민족화해를 위한 종교의 역할	이윤구(한국 선명회 회장)
	20:30~21:50	민족화해를 위한 시민운동의 과제	유재현(경실련 사무총장)
12. 9(월)	19:00~20:30	민족화해를 위한 새로운 정책적 발상	한완상(방송대 총장)
	20:30~21:50	졸업증서 및 수료증 수여	

▲민족화해 아카데미 강의계획

POSCO메시지 개강편

●단원 김홍도
논갈이(풍속화 중 일부)

'一年之計在於秋'
(일년지계 재어추)

'1년의 계획은 봄에있다(一年之計在於春)' 고
공자는 말했지만,
1년의 계획을 가을에 세워 보는 건 어떨까요?

9월의 개강을 맞이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1년의 계획을 세워 보는 겁니다.
학년 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재점검해 보는 것도 좋겠고,
지금부터 시작할 일들을 준비해도 좋겠지요.
올 연말까지의 계획표를 짜 볼 수도,
내년 이맘때까지의 청사진을 그려볼 수도 있을 겁니다.

새해를 맞이하듯 2학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9월에 신년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학생만의 특권입니다.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포항제철